

# 환경벤처산업의 여건과 전망

## 1. 먼저

20세기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환경”은 인류의 공동관심사가 되었고, 20세기를 마감하면서 21세기는 지식·정보·환경(Bio)사회로 이행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전망이 대세를 지배하게 되었으며, 산업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환경투자에 대한 경계(주저)는 기술개발로 극복해야 한다는 각성이 새로운 환경전문인 사이에서 강력히 주장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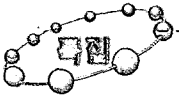
확실히 환경벤처의 등장은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도 하겠다.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을 대별하여 본다면, 선진국은 대체로 축적된 부와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여 자국내의 환경문제에 대하여는 괄목할만한 개선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끊임없이 야기되는 새로운 환경문제에 대하여 그 대응기술개발을 서두르는 동시에, 지구차원의 환경문제에 대하여는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공동 참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도 개도국의 공동참여에 유인책이 될 기술이전·공적자금부담 등에는 미온적이다. 또한 개도국은 부의 축적도 없고 당장 의식주문제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



김형철

한국환경벤처협회장



속에서 환경개선은 미룰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의식주문제의 어려움에서부터 시작된 막대한 국가채무와 영농의 획일화경향 때문에 자국과 국제환경문제에 대하여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 환경문제는 더욱 심각한 양국화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환경문제에 대한 선·후진국의 인식은 점차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으니, 이는 그간의 국제적 노력과 더불어 환경문제는 결코 경제외적이거나 후순위적인 것이 아니라 동가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라고 하겠다.

대체로 환경산업시장규모는 세계적으로는 5,800억 달러(2000년 기준)에서 1조 229억 달러(2008년)로, 국내적으로는 8조원(1998년)수준에서 15조원(2005년)으로 확대될 전망이고, 그 수요사업영역은 단순한 오염물질처리기술인 사후관리기술에서부터 사전예방기술인 청정기술, 그리고 환경복원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수요의 다양화는 신규환경사업의 개발을 강력히 활성화하는 동기가 되고 있다.

## 2. 우리나라 환경산업

환경산업체로 분류되는 업체는 환경시설 및 측정기기등을 설계·제작·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체로서 약 12,000개 업소가 있다.

이들 대부분은 규모가 영세하여 오염방지시설업의 경우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규모가 전체 오염방지시설업체(775개)의 63%로서 건설업체(평균 49억원), 정보통신업체(평균 14억원)에 비하여 현저히 낮고, 자본규모의 영세성은 그에

대한 신뢰도 부족으로 나타나서, 수요자의 입장에서 그 기술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실패할 경우를 염려해서 채택을 기피하는 경향이 농후했으며, 그 결과 환경산업체는 연구개발투자에 역불급이었고 부득이 생존수단으로서 기술도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기술료 지급액만 하더라도 연간 96억원에 달했으며, OECD에서 논의하고 있는 환경분야 115개 자유화대상품목에서만 보더라도 98년 한해에 약 2조 4천억원의 무역적자를 나타내고 있다(KIET, '99보고서).

또한 대부분의 환경시설건설은 건설업체가 수주하고 환경산업체는 건설업체의 하도급업체로 기능한다든지 또는 좁은 시장규모로 인하여 환경산업체간의 과당경쟁이 다반사로 됨으로써 거듭되는 악순환에서 좀처럼 헤어날 수 없음은 물론 부실시공등으로 인하여 환경산업체에 대한 불신마저 초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그러나 환경산업의 미래는 점차 밝아지고 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계시장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적으로는 향후 8년내에 현재규모의 배로 증대될 것이고, 특히 우리의 환경개선기술능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동남아 시장은 연 15-20%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국내시장도 5년내에 배이상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환경부 보고, 2003년까지 연12.5% 성장 예측).

둘째로는 우리의 기술능력이다. 환경기술을 그 발전단계에 따라 구분한다면 1세대기술(사후처리기술), 2세대기술(청정 및 사전오염방지기술), 그리고 3세대기술(무공해 및 복원기술)로 구분할 수 있는 바, 대기·수질·폐기물의 경우 고효율집진기술을 비롯한 일부기술은 선

진국에 비하여 전혀 손색이 없으며, 배연탈황·탈질기술과 청정기술 개발분야는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무선원격감시제어기술과 폐기물재활용기술 등 무공해 기술도 실증·상용화 단계에 이르고 있어 지리적·역사적·정서적 연계가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과 조화되어 입지를 다져나갈 수 있다.

셋째로는 정부의 의지가 확실하다는 것이다. 작년 10월 정부는 “환경기술발전을 위한 업무처리규정”을 제정하여 무분별한 외국기술도입을 반성, 업체의 기술도입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한편, 우수한 신기술개발을 장려하는 Eco-dream project를 시작하였다.

정부는 금년들어 ECO 2 project를 구체화하고, 그 대책의 일환으로서,

① 1차로 130억원 규모의 환경벤처펀드를 조성하여 venture의 사업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며, 그 성과에 따라 2, 3차 Fund 조성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고

② 500억원규모의 Eco-technopia 21 project를 지난 5월4일에 확정·공고하여 6개분야 총22개 중점과제별로 상용화기술개발을 추진 향후 10년간에 1조원규모의 동 project를 추진함으로써 환경기술의 선도적 지위를 굳히하고자 하는가 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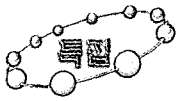
③ 입찰제도개선을 위한 환경건설기술업의 신설, 공사보증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법정조합의 법제화, 및 산업계와 환경업체가 장기적으로 시설개선과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오염규제 기준 예고제의 실시등을 추진하고 있는 등 환경벤처산업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는 대책을 범정부차원에서 구체화 하고 있다.

### 3. 환경벤처산업

#### 가. 벤처산업으로서의 환경산업

벤처산업(Venture Enterprise)이란 용어는 다양하다. 미국의 경우에는 “위험성이 크지만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신생기업(New business with high risk-high return)”으로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벤처기업기준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창업투자회사(조합)·신기술사업금융업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으로부터 자본금의 20%(주식에 한할 경우10%)이상 투자기업, 직전 사업년도의 연구개발비가 직전 사업년도 총 매출액의 5%이상인 기업, 특허권·실용안권 및 기술개발사업에 의한 매출액(수출액)이 총 매출액의 50%(25%)이상인 기업, 그리고 벤처기업평가기관에서 기술성 또는 사업화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기업(창업기업, 자체기술개발기업, 상기기준에 미달된 기업)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벤처로서의 환경산업체는 작년말 현재 약 280여개로서 5,400여개 전체벤처기업의 5%정도인 바, 이는 대부분의 환경산업체가 환경기술개발·실용화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영세하기 때문에 홍보가 부족하여 벤처캐피탈의 관심권외였음은 물론 환경기술을 필요로 하는 제조업·건설업 분야에서까지 해외기술에만 의존하고자 하는 경향을 자초케 하는 결과였고, 또한 환경시설은 대부분이 장치시설·공공재적 성격이 강하여 소량·다품종·주문생산체제인 바 IMF여파로 인한 환경투자위축은 환경벤처의 등장을 어렵게 만든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 나. 환경벤처산업의 여건변화

환경산업전반의 밝은 미래는 환경벤처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지만 환경벤처산업이 갖는 특별한 여건변화는 더욱 그 미래를 밝게 하고 있다.

첫째,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1세대 기술은 성장기를 지나 이미 성숙·쇠퇴기로 접어들고 있어 우리나라의 1세대 기술은 선진국과 기술력·원가경쟁력을 갖게되어 성장성 확보가 가능하고, 2세대·3세대 기술은 새로운 기술·특허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틈새시장개발을 통하여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환경산업계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관심이 증대되었다는 점이다. 이익이 있는 곳에는 시간·장소의 구애를 마다하지 않는다는 벤처캐피탈이 환경산업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환경산업이 21세기의 유망산업이라는 점, 국내의 정보통신중심의 벤처투자시장은 이미 성장성·수익성에서 한계에 달하고 있다는 점등을 꼽겠으나 우리나라 환경벤처가 보유하고 있는 신기술·특허기술의 성공가능성을 의식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셋째로는 국제환경시장여건의 변화이다. 종전에는 환경시설이 개별사업단위로 발주되는 경향이었으나 지금에 이르러서는 점차로 총괄발주하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서 관련환경기술이 일괄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참여하는 환경사업체는 뛰어난 기술을 갖춘 업체들이 건설업체등 대형업체와 공동 참여하게 되므로 입지가 크게 개선되게 되었다.

넷째로는 정부의 환경벤처기업의 육성책이 가시화된 점이다. 유망신기술 실용화사업·신기술장려책, 그리고 생명공학·정보통신·자동화

기술의 결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기술개발 등이 유례없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Eco-technopia 21 project의 상당부분은 이론개발보다는 이론이 뒷받침된 실용화 나아가서는 상용화를 겨냥한 계획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0년 5월 73개 회원사의 참여로 설립된 한국환경벤처협회(KEVA)는 그 설립목표를 국가환경보호와 경제발전에 두고, 그 설립의의를 다하기 위해 문호를 개방하며 기술발전·공동 마케팅을 위한 회원사 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경영합리화·선진화를 위한 벤처캐피탈과의 협력을 증진하며, 정보 등 전반적인 지식교류와 회원기업의 활성화, 회원사 공통의 애로사항을 관계요로에 건의·협력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기술발전·공동 마케팅을 위하여서는 회원사간의 기술제휴·상호자문 및 사업의 공동수행을, 벤처캐피탈과의 협력을 위하여서는 투자유치 포럼·설명회 그리고 MOU의 교환 등 다양한 방법을, 지식교류와 회원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서는 바이어등에 대한 공동설명·회원사 소개, 국내외 방문인사에 대한 회원사시설견학 및 회원사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방문안내 등을, 회원사 공통의 애로사항 해결은 관·학과의 협동, 그리고 정책건의의 투명성을 견지하면서 환경 업계전체의 이익과 국익의 균형감을 견지하여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회원사는 135개 업체로서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4. 전망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경벤처산업의 장

래에 다양한 청신호가 있지만 헤쳐나가야 할 과제도 허다하다. 기술정보와 시장정보에 관한 국제동향의 신속한 파악과 전파, 기술수급에 관한 장기전망의 수립과 여건변화에 따른 적절한 수정시스템의 구축, 투자에 대한 적절한 위험보장 안전변의 설치, 각종 제도적 문제점보완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의 것이 완급을 가려가면서 해결되어야 한다.

환경벤처산업은 시장이 형성되는 수요가 있고, 그 수요를 충족시키는 공급이 벤처캐피탈과 연계된 우수신기술이기만 하면 high-return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건전하고 안정적인 시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진입조건, 투자조건, 구매조건에 걸림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에 걸림돌이 되는 제반 문제점은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는 정부도 벤처산업과 한마음으로 어느 정도 Risk를 부담할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곧 위에서 살펴본 밝은 미래를 확실히 보증하는 수단이기도 하다.